

# ‘간화선’ 현대화 위한 과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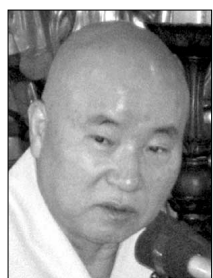
## 보조사상연구원 ‘한국 간화선의 현대적 조명’ 학술대회

**▶** 한국의 간화선은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1월 18일 ‘한국 간화선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선원의 간화선 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간화선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제1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간화선의 정체성, 간화선의 수용 과정 등 그동안 보조사상연구원의 간화선에 대한 학술대회를 총결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대회에서는 덕숭총림 수좌설정 스님의 ‘간화선의 현대적 조명’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의 ‘한국선원 및 수좌의 현황과 과제’ 벽송선원 선주 월암 스님의 ‘한국 간화선과 화두 참구의 계승’ 서울대 윤원철 교수의 ‘재가자들의 간화선 수행 현황’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간화선의 개선 과제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 법산 스님의 논문과 간화선의 역사적 계통과 사상적 연원을 추적한 월암 스님의 논문이 주목받았다. 이들 논문을 요약했다.

### ‘점검제도’ 도입... 선원마다 특화 프로그램을

법산 스님 ‘한국선원 및 수좌의 현황과 과제’



최근 선원과 수좌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와 맞물려 간화선 중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과제로는 △수행자들의 간화선 점검 과정 제도화 △선원의 특성화 △산철 기간 봉사제도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수행자들이 자신의 수행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 ‘간화선 점검 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각 선원의 조실들은 수좌들의 공부를 점검해 주어 정진 의욕성과 발심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 한 철에 두세 번은 조실이나 선원장에게 수행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필요하다.

선원마다 특화된 수행 프로그램 마련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현재의 선원들은 어느 곳을 가든 거의千篇일적으로 똑 같은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자 수행자들의 근기에 맞고 성향에 맞는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면 정진에 효과적일 것이다.

선원은 또 일종의 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처음으로 선원에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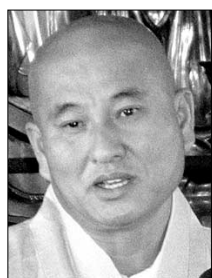
방한 수좌에게 는 반드시 좌선 의, 화두간택, 간화의 방법 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요즘 선원에 3급 고시 책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한 스님들이 선원의 환경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므로 반드시 초창 수좌들에 대한 기본교육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선원은 또 본질에는 실참 위주로, 산철에는 조사어록이나 선(禪)관계 경전을 교육하는 과정을 만들어 수좌들에게 자기 점검의 기회를 주고 선학을 통해 남에게 선을 가르치고 설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선원은 선학과 선수행을 교육할 수 있는 선지도사 양성기관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가정 ‘선학대학원’을 설립해 입학자격과 졸업자격을 철저한 검증을 받아 선지도사를 배출해 출가와 재가에 간화선 지도를 담당케 해야 한다.

### “자신의 간절한 현실문제를 ‘화두’로

월암 스님 ‘한국 간화선과 화두 참구의 계승’



간화선에 있어서 화두의 연원과 전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옛 조사의 깨달음의 기원이 모두 화두의 참구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화두는 간택도 중요하지만 이를 참구함에 있어 현상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구도의 과정에 대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종문의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본참공안(本參公案: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참구하는 공안)으로서의 가치보다 그 공안이 실참자 자신의 간절한 현실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두에 자신의 의식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이 화두는 죽은 화두(死句)가 되고 만다.

참선은 언어와 문자, 일음일어로 헤아려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헤아려야 한다.

또 간화행자는 실참을 통해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지향하고 나아가 일체 유정(有情)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선원에서 율령정진하는 신심납자는 자비심의 발현으로 좌복 밑에 중생의 고통과 회한과 은혜를 꿰고, 역사와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활발한 선풍을 진작시키고자 향상일로(向上一路: 간화선의 최종 경지) 매진해야 한다. 오직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無住生死),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無住涅槃) 무주행(無住行)의 대승정신을 토대로 삼아 실참심(實參心)하는 것이 간화행자의 본분이다.

‘무자’ ‘이 뭇고?’ ‘블레면목’ 화두가 되었든, 그 외에 어떤 화두를 참구하든 간에 화두에 의심을 돈발해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이 사무쳐 불같은 의단(疑團)을 이루어 화두일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화두가 일념만(一念萬年)이 되어 어느 때 시절언언이 꽃피는 날을 당하여 일념(一念), 무념(無念)까지 뛰어 넘어 생사 고통 끊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간화행자의 본분일 것이다. 이것이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논이요, 요의중생(饒益衆生)의 길이다. **정리·노병철 기자**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0>

죽음

파스칼은 지구상의 생물 중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또 ‘비록 물 한 방울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위대하다’고 했다.

죽음만큼 인간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 또 있을까. 역사와 철학, 종교가 인간이 죽음을 인식한다는 데서 나왔다. 그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박물관의 초기 인류의 발자취가 주로 제사와 무덤에서 발견되는 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20세기 과학은 인간이 죽음의 이유를 이해하고 정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은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다. 아

사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방법과 심지어 늙고 죽음을 관여하는 유전자의 분자구조와 생화학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늙고 죽음을 정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무모해 보이는 이 시도의 성공 확률은 높다. 분자수준의 분석 그리고 생명신호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연이 만들어준 법칙을 단시간에 깨울 수 있을 것이다.

UN은 2030년이 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수명 변화는 단순히 고령화 사회에서 예측되는 삶의 방식 변화뿐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

### 20세기 과학, 죽음 이해와 정복 위해 노력

### 고령화로 삶 방식·생사에 대한 인식 바뀌어

이를 즐긴다. 때 여성은 신발을 거꾸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또 과거 100년 전만 해도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 심장 등 장기가 쇠하면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전자의 일들을 죽음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다. 출산은 삶을 위한 축복이고, 전염병은 더 이상 받을 뉘 못하게 했다.

또 심장의 동맥에 관을 넣어서 피가 잘 돌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MRI와 같은 방식으로 뇌를 포함하는 몸의 곳곳을 마이 크론 수준까지 관찰함으로써 조기에

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인간의 역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고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유학자 공자만큼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깊이 생각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허랍인들과 같이 논리적으로 존재와 진리에 대해서 파헤친 사람들도 없다. 절대자의 의미에 대해 유대인과 같이 깊이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의미와 이것이 주는 우주와의 관계를 부처님처럼 과학적으로 파헤친 분은 없을 것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불자들은 다시 한번 죽음의 의미와 이것이 주는 삶의 영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할 시점인 것 같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 미군기지에서 박물관으로...

부산 하얏리아 캠프내 불상·비석 4점 시립박물관에 보관

주한미군 기지 내 보관돼 있던 불상 3구와 비석 1점이 부산시립박물관에 전시·보관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1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8월 폐쇄된 부산 미군 기지 하얏리아 캠프 내에 보관돼 있던 불상 3점과 비석 1점 등 총 4점의 불교문화재를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인계받아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 연대와 제작의

도, 원래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부산시립박물관에 전시·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향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에 의해 반환되는 미군기내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명 ‘하얏리아 캠프 불상’이라 불렸던



법과 형태 등이 유사한 점으로 보아 동일한 연대의 통일신라시대 말기부터 조선시대

까지로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나 인수 후 정밀 학술조사를 통해 그 제작 연대 등이 밝혀질 전망이다.

또 다른 유물인 ‘마두관세음보살(馬頭觀世音菩薩)’의 7자가 새겨진 비석 1점은 3점의 불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존재했던 마두관세음보살의 표시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료조사 등 문헌검증을 거쳐 최종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이 유물들은 하얏리아 캠프의 공식폐쇄 전까지는 기지 내 사무실에 보관되었고 폐쇄 후에는 도난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대구캠프 미군부대 사무실로 옮겨져 보관되어 왔다. **노병철 기자**



그림·문병성

#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차분 완대로 인하여 3차분 한정제작, 인화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로 하여 현 재는 국내외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 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적정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 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미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 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된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